

고급 대형 SUV 느낌 ... 시원한 주행감에 핸들도 부드러워

기아차 4세대 카니발 시승기

기아자동차가 6년만에 완전변경 모델을 출시한 4세대 카니발은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모델이다. 지난달 사전계약 첫날 2만3000여대를 기록한 뒤 14일간 무려 3만2000여대가 계약되면서 지난해 총 판매 대수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최근 2.2 디젤 엔진이 장착된 7인승 신형 카니발(시그니처)을 기아차 광주공장부터 화순 도곡까지 왕복 30여km 구간을 직접 운행해왔다. 4세대 카니발은 처음 실물만 만나 본 순간, 카니발이 출시 전부터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이유가 짐작됐다.

기아차의 카니발 외장 디자인 컨셉은 '웅장한 볼륨감'(Grand Volume)이다. 실물로 본 카니발의 전면부와 후면부는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을 줬다. 지금까지 보여준 전형적인 '미니밴'의 디자인을 벗어나 단단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미니밴이라고보다 고급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분위기를 풍겼다.

차량 운행 전 살펴본 내부 역시 기존 모델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다. 우선 실내 공간이 넓어졌다. 기아차의 카니발 실내 디자인 컨셉은 '무한한 공간 활용성'(Spatial Talents)으로 기존 모델보다 전장은 40mm 늘어난 5155mm, 전폭은 10mm 늘어난 1995mm, 축거는 30mm 늘어난 3090mm다.

넓어진 실내 만큼 운전석은 물론, 2열과 3열의 공간도 넉넉해졌다. 3열 시트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접어 트렁크 바닥 아래로 넣을 수 있어 적재 공간의 활

실내 공간 넓어져 운전석 등 공간 넉넉 '무한한 공간 활용성' 안전사양 탑재 ... 방향전환·좁은 도로 달릴 때도 부담 없어



'무한한 공간 활용성'(Spatial Talents)이라는 컨셉처럼 신형 카니발은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카니발 내부 모습. <기아자동차 제공>

용도도 높아보였다. 여기에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는 시트 쿠션과 시트백, 레그 서포트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몸의 하중을 분산시켜줬다. 2열 승차감과 시트에 앉을 때 착좌감은 고급 세단의 편안함을 뛰어넘었다. 확장형 센터콘솔, 후석 공간에 보조 에어컨 필터 등 적용됐고, 무엇보다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원격 파워 슬라이딩 도어&테일게이트 동시 열림·닫힘,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등 타고 내리는 승·하차 모든 순간에 신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이번 시승에서 가장 눈여겨 봤던

부분이 있다. 바로 핸들의 무게감이다. 이전 모델인 3세대 카니발을 주행해본 적이 있었던 데다, 주변 3세대 카니발 운전자들 상당수가 핸들의 무거움을 단점으로 꼽았던 터였다. 이전 모델의 경우 핸들이 다소 무겁고, 뻑뻑한 느낌을 줬던 운행에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출시된 4세대 카니발은 저속 주행이나 주차 시에도 핸들의 뻑뻑함이 없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운전석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시원감을 줬다. 변속기는 기어노브가 아닌 다이얼 방식이다.



기아차 4세대 카니발이 기존 전형적인 미니밴의 디자인을 벗어나 강렬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신형 카니발이 화순 도곡역전 주변 도로를 달리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전장이 길어져 첫 운행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막상 운전을 하니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다. 방향을 전환하거나 다소 좁은 도로를 달릴 때도 부담없이 방향을 틀 수 있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후측방 모니터(BVM),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시스템 등 안전사양이 탑재돼 있어 '큰 차'라는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었다.

이밖에 가속 구간 주행감도 시원했고, 코너 구간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줬다. 멈춰다가 다시 출발할 때 속도를 급히 올릴 경

우가 아니면 소음도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였다.

한편 4세대 카니발은 가솔린 3.5와 디젤 2.2 등 총 2개 모델로 출시되며 7인승·9인승·11인승으로 운영된다.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G3.5 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94PS(마력), 최대토크 36.2kgf·m 복합연비 9.1km/l (9인승 기준)의 동력성을 갖췄다. 디젤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02PS(마력), 최대토크 45.0kgf·m 복합연비 13.1km/l (9인승 기준)의 동력성을 갖췄다.

판매가격은 9인승·11인승 가솔린 모델 ▲프레스티지 3160만원 ▲노블레스 3590만원 ▲시그니처 3985만원이다. 디젤 모델은 120만원이 추가된다. 7인승은 가솔린 모델 ▲노블레스 3824만원 ▲시그니처 4236만원으로, 디젤 모델은 118만원 추가된다. 외장 칼라는 ▲아스트라 블루 ▲플래어 레드 ▲스노우 화이트펠 ▲실키 실버 ▲판테라 메탈 ▲오로라 블랙 등 총 6가지로 운영되며, 내장 칼라는 ▲미스티 그레이 ▲코튼 베이지 ▲새틀라이트 등 총 3가지로 운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차박 체험 플랫폼 '휠핑' 모집

모바일 웹 통해 용품 신청

대여료로 1박2일 차박 진행

현대자동차는 손쉬운 차박 체험을 위한 전용 플랫폼 '휠핑'(Wheelping·사진)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휠핑'은 현대차가 고객들에게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무료 시승 기회와 함께 차박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차박 체험 플랫폼이다.

휠핑은 최근 높아진 차박(차에서 하는 숙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 자동차의 휠(Wheel)과 캠핑(Camping)을 결합해 탄생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모바일 웹을 통해 일정과 대여하고자 하는 차량, 필요한 캠핑 용품을 신청해 응모한 후 당첨 시

신청한 용품 대여료만 추가 결제하고 1박 2일간의 차박을 진행하면 된다.

대여 가능한 차종은 ▲4세대 싼타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싼타페'와 ▲올해 출시하는 4세대 '신형 투싼(NX4)' 두 가지이며, 현대차는 총 140팀(2인 기준 총 280명)의 고객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 캠핑 전문 브랜드 '미니멀웍스'와 제휴를 통해 유상으로 차박 용품을 대여해 주고, 캠핑장에 대한 추천 정보를 비롯해 웰컴 패키지까지 제공할 계획에 있다.

전용 사이트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며, 당첨자에 한해 캠핑 체험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주 2회씩, 각 20팀을 대상으로 총 7차 수에 걸쳐 운영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휠핑은 자동차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전하기 위해 현대차가 새롭게 마련한 플랫폼으로, '휠핑'이 제공하는 손쉬운 차박 여행이 코로

나 19로 지친 고객들의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세계적 권위 'IDEA 2020' 수상

금호타이어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 'IDEA 2020'에서 자사의 미래형 타이어 2종이 운송기기 부문 분상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월 if 디자인 어워드와 3월 레드닷(Red Dot) 디자인 어워드에서 이어 이번 IDEA까지, 올해에만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수상하게 됐다.

'IDEA'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 주관하는 국제디자인상으로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경험,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심미성 등 5가지 심사기준을 통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하며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이번에 금호타이어가 수상한 제품은 미래 지향적 기술력을 담은 컨셉타이어 에어리스 타이어 'e-NIMF'와 하이브리드 타이어 'e-TOPS'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미래 자동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어리스 타이어 등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중이다"며 "이번 IDEA 수상은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미래지향적 디자인 역량 및 기술력에 대한 성과"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등근 것들 보면 아따
- * 8월 발간 예정
정영주 시집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음이 제 몸을 뒀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담으로 칠해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 수석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 신규리본 동독자 마경덕

시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저본세라이어 시선
강대선